# 영상스토리텔링2 기말과제 : C조 시나리오

로그라인: 자그마한 개인 미용실을 개업한 미용사는 별의별 고객들을 버티지 못해 하루만에 미용실을 폐업하게 된다.

**<오프닝>**

유리문에 [CLOSED] 사인을 [OPEN] 사인으로 바꾸는 미용사.

미용실 입구에 개업을 축하하는 각종 화분과 선물이 놓여져 있다.
의자 정렬을 끝내고, 뿌듯한 미소를 짓는 미용사.

미용사: 후우, 드디어 개업이네. 개업빨로 손님들도 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입구를 슬쩍 바라본다)

**ep.01**
**<남자친구의 결혼식>**

딸랑, 하고 문 위에 달린 벨 C.U.

미용사: (무척 밝은 얼굴로) 어서오세요~### 입니다~!
손님: (지친 얼굴로 들어온다) 안녕하세요...
미용사: (손님을 자리로 안내하며) 이리 앉으시면 되세요.
손님, 굳은 표정으로 힘없이 자리에 앉는다.
미용사: 머리 하러 오셨어요?
손님: 아뇨...메이크업..이요.
미용사: (머리칼을 만지며) 중요한 자리 가시나봐요~
손님: ...네…
미용사: 어디 가세요~?
손님: ...남자친구..
미용사: 어머, 남자친구 만나러 가세요? 기념일인가 보ㄴ
손님: (단호) 전 남자친구 결혼식이요.

(3초의 침묵)
S.E: 까악 까악 까악

미용사, 결의에 찬 손으로 가운을 팡 편 뒤
손님에게 입혀 준다. (비장한 음악, 거친 S.E)

S.E: 촤악- (메이크업 브러쉬에서 빛이 난다)
S.E: 삐싱- (고데기에서 빛이 난다)
S.E: 크아앙~ (손님과 미용사의 눈이 야수처럼 빛난다)

빨리감기로 투닥투닥 화장과 메이크업이 진행된다. (빠른 컷전환)

BGM 끝
얼마 뒤, 산발이 된 미용사와 그런 미용사의 등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손님의 모습

미용사: (어깨를 들썩이며 숨을 몰아쉰다) 허억..허억..손님..
미용사: (손님에게 두른 미용보를 걷으며) 끝났습니다..

카메라 천천히 틸 업, 만족스런 미소를 지은 손님의 입술이 보인다.
손님의 뒷모습으로 보이는 아까와는 달리 웨이브 진 매끄러운 머릿결.

## 엄청 예뻐졌다는 걸 신비롭게 표현하기 위해 일부러 얼굴 전체를 보여주지 않음

미용사 O.T.S로 또각또각 걸어나가는 손님의 뒷모습 슬로우

미용사: (BS.  전쟁 나가는 장군을 배웅하듯) 부디 무사히..다녀오세요..

미용사 P.O.V로 뒤돌아보지 않고 손인사하며 걸어나가는 손님의 모습이 보인다. (슬로우)

**ep.02**
**<매-직☆>**

한창 산발이 된 머리를 다듬고 있는 미용사.
그 때,
S.E: 딸랑~
미용사: 어서오세요~!
손님이 얼굴을 반이나 가리는 검은 면 마스크를 한 채 걸어온다.

미용사: 여기 앉으세요~
손님: (자리에 앉고는) ..매직을 좀 하고 싶은데요.
미용사: 매직이요? (미용보를 두르고는 손님의 머리를 매만진다) 지금도 충분히 생머리이신데, 더 일자로 펴고 싶으세요?
손님: 아뇨..그게 아니라..

손님, 마스크를 벗는데…
웨이브 진 무언가가 턱 아래쪽으로 촤르륵 하고 내려온다.

미용사, 눈이 왕방울만 해지며 굳는다.

수염 C.U. 하며
S.E: 헬로~

손님: 이걸 좀 펴고 싶어서요.
미용사: (굳음)
손님: 저기요..?

뒤돌아보는 손님 슬로우, 수염이 휘날린다.
미용사의 얼굴을 때리는 수염

미용사: (정신을 차린 듯 깜짝 놀라며) 이..이걸 매직을요?
손님: (시무룩한 얼굴로) 네..안되나요?
미용사: 아니..할 수 있기는 할 것 같은데요...정말 하시겠어요 손님..?
고개를 끄덕이는 손님, 미용사는 별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고는 장갑을 낀다.
(장갑 끼는 손 E.C.U.)

시술이 끝나고...

손님: 찰랑찰랑하네요..! (감탄)
미용사: 하하..원래 매직은 오만 원인데, 그….숱이 적으시니까.. (말을 잇지 못한다) 이만 원만 받겠습니다..
손님: (찰랑찰랑한 수염을 계속 쓰다듬으며)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카드로 계산해 주세요.

계산을 마치고 나가는 손님.
미용사: 안녕히 가세ㅇ
손님: 다음에 또 하러 올게요~! (나감)
미용사, 그 상태로 굳어 있다.

**ep.03**
**<조선에서 온 손님>**

굳어 있는 미용사의 귀에 딸랑 소리가 들려오고,
미용사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가려는 찰나.

손님: (뒷짐을 지고 걸어온다) 엣헴, 이리오너라~

미용사: (이상한 걸 들었다는 표정으로 빠르게 휙 고개를 돌려 손님을 바라본다)

미용사 P.O.V로 흰 한복을 입고 걸어오는 손님 슬로우

미용사: (어이없다는 듯) 이 뭔…
손님: (여전히 뒷짐을 진 채로) 게 아무도 없는가?
미용사: (정신을 차린 듯 벌떡 일어나며) 어서오십쇼, 나으ㄹ..아니 손님! 편하신 데 앉으시면 되세요.

손님, 주위를 두리번대다 자리에 양반다리를 하고 풀썩 앉는다.

미용사: (머뭇거리며 다가가 미용보를 두른다) 저..어떤 머리 하러 오셨어요?
손님: 그것이 말이오..말하자면 긴데..

S.E: 슬픈 국악이 흐르기 시작한다.

손님, 무언가를 끊임없이 말한다. 미용사를 빗과 집게를 들고는 하염없이 경청한다.
음악이 잠시 멈추며

손님: 하아..그래서 말이오.

다시 음악이 흐르며 손님이 점점 슬픈 얼굴로 무언가를 말하고, 미용사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인다.

음악이 끝나며

손님: 그래서, 내 이 머리를 자르러 온 걸세.
미용사: (결의에 찬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시군요..제가 멋지게 잘라드리겠습니다.

미용사, 상투를 잡고는 가위를 점차 가까이 갖다댄다.

손님: (눈을 질끈 감으며) 크으윽...신체발부 수지부모인 것을...아버지 어머니..! 이 불효자는 옵니다아아아아..!

미용사, 가위로 상투를 잘라 낸다
S.E: 서걱.
바닥에 툭 하고 떨어지는 상투(SLOW)와, 들려오는 탄식 소리(SLOW).

미용사가 스펀지로 손님의 뒷목을 쓸어내는 모습이 보인다.

떨어진 상투를 말없이 바라보던 손님은 무릎을 몇 번 털더니 자리에서 일어난다.
손님: (지친 목소리로) 나는...이만 가 보겠소..
미용사: 안녕히 가세요!
손님, 터덜터덜 걸어 나간다.
미용사: 손님..! 취업 꼭 성공하세요..!

**ep.04**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손님>**

미용사, 상투를 집어 들고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다.
그 때, 들어오는 손님.
S.E: 딸랑~

미용사: 어서오세요~!
손님: 저, 염색하러 왔는데 지금 되나요?
미용사: 아 네, 됩니다! 편하신 데 앉으세요.
손님: 아, 그러면 저기 앉을게요.
손님, 의자에 앉고는 미소짓는다.

미용사: (손님에게 미용보를 두르며) 어떤 색으로 염색하시려구 오셨어요?
손님: (해맑게) 다크 브라운으로 해주세요!
미용사: 다...크 브라운이요? (손님의 머리를 만지며) 손님 지금 머리도 다크 브라운 같으신데..
손님: 아, 저번에는 집에서 짙은 갈색으로 염색한 거 거든요.(찡긋) 이번엔 짙은 갈색 말구 다크 브라운으로 하려구요.
미용사: 어.....짙은 갈색... 말고 다크..브라운이요..?
손님: 네! 다크 브라운이요!(고개를 발랄하게 끄덕인다)
미용사: 색상 변화가 별로 없으실 텐데..
손님: (못 들은 듯이) 친구들이 다들 다크 브라운이 더 잘어울릴 것 같다고 하더라구여 ㅎㅎ
미용사: (색상표를 보여 주며) 저..이 색으로 나오실 텐데, 괜찮으세요?
손님: 네, 맞아요! 이걸로 염색해주세요. 너무 예쁠 것 같다~~!
미용사: (탐탁찮은 얼굴로) 알겠습니다..

염색이 끝났지만 여전히 머리는 같은 색이다.

손님: (만족한 듯 이리저리 바라보며) 우와 너어무 잘됐네요! 역시 짙은 갈색보다는 다크 브라운이야..! 미용사님이 봐도 그렇지 않나요?

미용사: 하하..만족하신다니 다행이네요..

손님:  (신난 듯이) 다음에는 어두운 밤색으로 염색하러 와야겠어요~! 안녕히계세요~~!
(발랄한 발걸음으로 미용실을 나간다)

미용사, 체념한 얼굴로 손님이 나간 자리를 바라보며 미소짓는다.
미용사: 하하..그러세요...

**ep.05**
**<깐깐한 손님>**

미용사, 바닥을 청소하고 있다.
그 때 밖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말소리.

손님: (걸어오는 소리와 함께) 어휴..미용실 로고가 왜 이래? 부피값이 엉망이네. 로고에 돈 좀 쓰지 참..

딸랑~

미용사: 어서오세요~
손님: (시크하게) 안녕하세요.
미용사: 이쪽에 앉으시면 되세요~!

손님, 의자에 앉고는 빗을 꺼내 머리를 정돈한다.
트롤리를 챙기는 미용사.

손님: 아, 근데 여기 로고.. 돈 주고 맡겼나요?
미용사: (당황하며) 네? 아..제가 만들었는데요.
손님: (이해했다는 듯이) 아~ 그래요? 왠지..조금 서툰 게 보이더라구요.
미용사: (트롤리를 챙겨 다가오며) 아..네...

미용사: 어떻게 해 드릴까요 손님?
손님: (뚝부러지게) 머리가 좀 길어서요, 2센티만 잘라 주세요.
미용사: 네, 알겠습니다~!

미용사, 신중한 눈빛으로 손님의 머리를 다듬는다.
바닥에 떨어지는 짧은 머리칼들.

미용사: 다 됐습니다 손님~

손님, 천천히 감은 눈을 뜨더니 뭔가 맘에 안 든다는 표정을 짓는다.

손님: (머리칼을 이리 저리 만지며)...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미용사: 네?!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 같으세요..?
손님: 아니, 제가 분명히 2센티만 잘라 달라고 한 것 같은데.
(바닥에 떨어진 머리칼 하나를 줍는다)
(그 머리칼을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자로 재며 미용사의 눈 앞에 내민다)
봐요. 2.2센티잖아요!

미용사, 벙찐 얼굴로 자를 바라본다.

손님: 어후, 그동안 열심히 기른 머리인데 아까워서 어떡해..

미용사, 여전히 벙찐 얼굴이다.

손님: 2.1센티까지는 너그럽게 봐 줄 수 있는데, 2.2센티는 좀 아니잖아요. 네?

미용사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던 그 때, 손님의 전화가 울린다.

손님: (전화를 받고는) 뭐? 약속이 2시 27분 30초로 앞당겨졌다고? 어후 정말.. 일단 알겠어. 이따 봐.
(전화를 끊고선) 이번에는 제가 바빠서 봐 주는데, 다음에는 좀 똑바로 해주세요.

손님, 가방에서 아주 빳빳한 만원짜리 두 장을 가지런히 선반에 놓고는 급한 걸음으로 나가버린다.

미용사, 어느샌가 손에 쥐어져 있는 자를 빤히 바라본다.

미용사: ...뭐야...

**ep.06**
**<아기 미용>**

미용사, 손에 든 자를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는 한숨을 쉰다.

딸랑~

손님: (문으로 빼꼼 얼굴을 내밀며) 우리 아기 미용 좀 하러 왔는데 괜찮나요?
미용사: 어서오세요~ 아기가 많이 어린가요?
손님: 그건 아니구..7살 됐어요.
미용사: 아, 그 정도 나이면 의젓하니까 괜찮아요. (웃으며) 들어오세요.

손님, 커다란 가방을 들고 조심스레 들어온다.

미용사: (커피 테이블에 손님을 안내하며) 어머님은 여기 앉으세요, 아이는 아직 안 왔나요?
손님: 아뇨, 같이 왔는데요.
미용사: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네..? 아이가 어디 있으시다는..

그 때, 손님이 가져온 가방이 움직인다.
손님: 여기 있어요.
미용사: 네..?!

미용사, 동공지진하며 가방을 바라본다.

S.E: 왕! 왕왕!

손님: (미소를 지으며) 7살 된 말티즈에요.

미용사, 들고 있던 미용보를 떨어뜨린다.

연달아 들려오는 강아지 울음소리.

미용사: 죄송하지만 애견샵은 옆 건물이에요.

**ep.7**
**<뷰티 유튜버>**

미용사, 지친 얼굴로 앉아있다가 딸랑 소리에 고개를 든다.
미용사: 어서오세요~
손님: (셀프캠을 들고 뭐라 이야기를 하며 들어온다)
미용사: 편하신 데 앉으시면 됩니다~!
손님, 자리에 앉는 길에서도 이곳저곳을 마구마구 카메라에 비춘다
미용사, 그런 손님을 의아하게 바라본다.
미용사: 뭐지..?

자리에 앉은 손님에게 다가가는 미용사.
손님은 앉아서도 뭐라뭐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손님: 저의 브이로그와 함께 같이 미용실에 온 기분을 느껴보세요~!
미용사: 머리 어떻게 해 드릴까요?
손님: (카메라를 보며) 잠시만요 여러분~! (미용사를 보며) 음..영양좀 넣구 파마하고 싶은데..여기서 제일 비싼걸루 다 해주세요.
미용사, 봉을 잡았다는 표정으로 기뻐한다. (개이득)
미용사: 그럼, 최고급 볼륨매직펌에 000 영양 추가 하시고, 지금 고객님 머리가 좀 기셔서 기장추가까지 하시면…(계산기 두드린다)  이 가격인데 괜찮으세요?
손님: 네 괜찮아요~ (쿨하게 승낙)
손님: (카메라를 바라보며) 저는 소중하니까~ 미용실에서도 최.고.급.으로. 아시죠 여러분?
미용사, 봉을 잡았다는 표정으로 기뻐한다. (개이득)
미용사, 혼신의 힘을 다해 미용을 한다 (FAST)
중간에 멈춰서 롤을 만 채로 셀카 찰-칵
미용사, 다시 혼신의 힘을 다해 미용을 한다 (FAST)

미용사: 다 됐습니다~!
손님, 만족스러운 얼굴로 머리를 쓰다듬는다.
손님: 어머~ 너무 잘 됐네요. 저, 카메라로 한바퀴 찍어주실 수 있어요? (카메라를 건넨다)
미용사: 아, 네. 찍어드릴게요. (카메라를 잡고 손님 주위를 한바퀴 빙 돈다)
손님: (머리를 만지며) 역시 비싼 건 달라... 아까 영양할 때 헤어팩 뭐 썼어요?

미용사: (갑작스런 PPL 톤으로) 앗, 이 제품은 고객님의 모발을 건강하고 탄력있게 만들어주는 000 사의 프로- 하이드로 밸런스 엘라스틱 프로틴 헤어팩입니다.

손님: 어머, 그 제품 꼭 사야겠군요! 하나 챙겨주세요~!

미용사: 네 손님~!

미용사, 계산을 한다.
미용사: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32만원입니다~

손님, 당당하게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켜고 내민다.
미용사: 아~페이로 결제하시겠어요?
손님: 페이가 아니라.. 이거 모르세요?
미용사: 네?
손님: 제 유튜브인데요. 제가 사실 잘나가는 뷰티 유튜버거든요. 여기 옆에 구독자 수 요고요고~ 보이시죠? 제가 유튜브에 아까 찍은 브이로그랑~ 인스타 스토리에 이렇게 다 해서 글 한 번 딱 올리면~ 이제 이 미용실 사람들 터져요 터져~

미용사, 굳은 얼굴로 바라본다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얼굴)

손님: 그러니까, 이거 협찬. 되는거죠?

미용사: 네..? 협찬..이요? (이상한 걸 들었다는 듯)

손님, 해맑게 유튜브 창을 보여주고 있다.

미용사, 점차 얼굴이 화난 표정으로 바뀐다.

미용사: 아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다 시술 받아놓으시고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손님: 에~이, 다 서로 상부상조하자는 건데. 좀 해주면 안돼요? 네.
미용사: 그런 거 안합니다 손님. 32만원 결제 하셔야 돼요.
손님: 아 씨, 제가 여기 불매운동 하면 여기 다 망해요. 알아요?
미용사: 불매운동이건 뭐건 상관 안 하니까 결제 하시라구요.
손님: 허, 참 나. 딱 보이네, 이렇게 쩨쩨한데 어떻게 오래 장사하겠어. 불매운동 안 해도 금방 망하겠어요 여기.
미용사: ……X발...계산이나 하고 꺼지세요.
손님: 어머, 진짜 미쳤나봐? (카드를 던지며) 알겠으니까 계산이나 빨리 해 줘요.
미용사, 부들거리는 손으로 계산을 하고는 카드를 던진다.
손님은 어머어머, 하면서 카드를 줍고는 밖으로 나간다.

미용사. 거친 숨을 내쉬며 부들거리는 손을 꽉 주먹쥔다.

이내 분노에 찬 눈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는, 카메라쪽으로 앞치마를 벗어 던진다.

앞치마에 가려 Black.

미용실, 불이 꺼져 어슴푸레한 채로 OPEN 사인이 CLOSED로 바뀐다.
터덜 터덜 나오는 초췌한 미용사.
CLOSED 위에 “임대문의” 표지판을 붙인다.

떠나는 미용사,

임대문의 표지 C.U.

-END-